

캐나다 크루즈 여행

기간: 10월 26일 - 10월 31일(5박 6일)

이번 캐나다 크루즈 여행을 위해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말레이시아와 미국 10주에 산재한 동문들이 참가하여 Global Reunion 행사를 가졌다.

25일 뉴욕에 도착한 동문들은 김승호(23회) 동문이 운영하는 LIC Hotel에서 1차 여정을 풀었고 며칠 일찍 도착한 동문들은 워싱턴 DC와 뉴욕 시내 투어를 했다.

26일 브룩클린 항에서 출발한 17층짜리 크루즈 선박 Princess호에는 161명의 동문들이 5박 6일의 여행을 위해 몸을 실었다.

28일에는 Halifax 시내 관광과 Halifax에서 가장 유명한 화강암 바위와 대서양 바다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페기스 코드 등대를 관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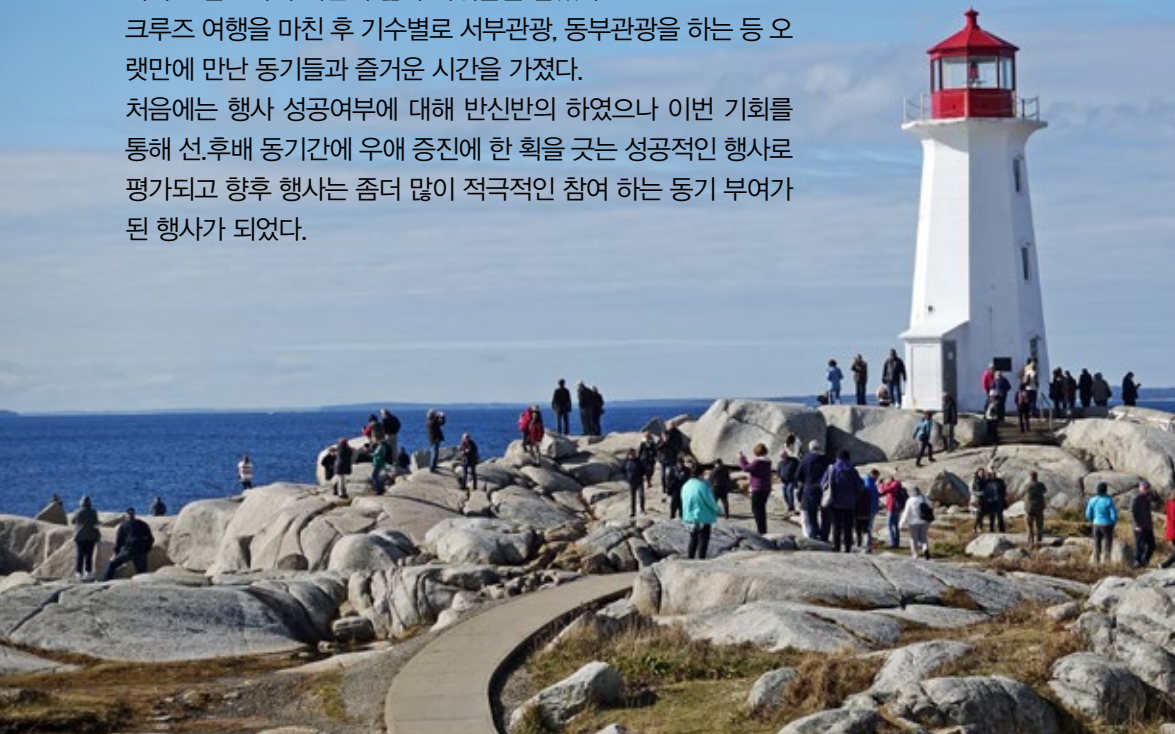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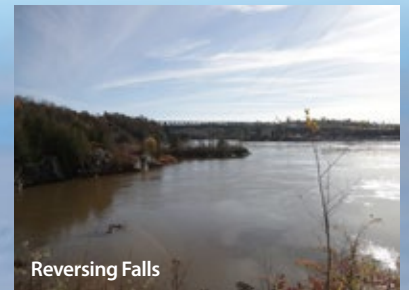
29일에는 St. John 시내 관광, Bay Fundy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파도와 강어귀 끝에 좁은 협곡의 조합으로 유명한 Reversing 폭포 그리고 St. Martins에 있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세계에서 제일 큰 Bay Fundy을 끼고 있어 자연스럽게 생성된 에코 동굴도 관광하였다.

30일에는 크루즈 선상에서 2020-2021 신입 회장단을 선출하는 총회가 열렸다.

권일준(20회) 사회로 각 기별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특히 21회 동문들은 한국에서 한복까지 준비하여 분위기를 돋우며 모든 동문들의 관심을 끌었다. 80세가 넘는 동문들도 저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하여 시간이 짧아 아쉬움을 남겼다.

크루즈 여행을 마친 후 기수별로 서부관광, 동부관광을 하는 등 오랫동안 만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행사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 하였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선.후배 동기간에 우애 증진에 한 획을 긋는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고 향후 행사는 좀더 많이 적극적인 참여 하는 동기 부여가 된 행사가 되었다.



동기들 모임



10회 ▶ 변인재, 안종희, 서정학



11회 ▶ 동기들



14회 ▶ 동기들



16회 ▶ 한영한 부부, 이종근 부부



17회 ▶ 임혜옥 부부



21회 ▶ 동기들



22회 ▶ 동기들



23회 ▶ 동기들

기수별 장기자랑



10회 ▶ 변인재 부부의 “인생의 나그네” 듀엣



11회 ▶ 동기들 합창



13회 ▶ 김복자, 김경자 동문



14회 ▶ 라인댄스



17회 ▶ 박기순, 임혜옥 시낭송



20회 ▶ 권일준 부부의 빌리 진 차차 댄스



20회 ▶ 김영옥 독창



21회 ▶ 송영옥 외 여자동기들의 아리랑판타지 공연(대상 수상)

기수별 장기자랑



21회 ▶ 유병기 외 남자동기들의 백코러스와 백댄서



22회 ▶ '울산아가씨' 노래와 춤—한국에서 최다참석(30명)



22회 ▶ 토론토 이양배의 '대니보이' 하모니카 연주



23회 ▶ 이정우 외 동기들의 '아모르 파티' 춤과 노래



23회 ▶ 중요무형문화제 23호 문재숙 동문의 '진도 아리랑'



47회 ▶ 구송영의 자녀 박하은, 박하숨 노래



권오화(8회) 선배님의 장기자랑 수상 발표





밤 바다

나에게 이번 여행결정은 여행을 안 좋아 하는 남편이 혹시 크루즈는 좋아하려나 싶은 마음에 이왕이면 동문들과 함께 라면 더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나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다. 동굴 탐험(?)에 필요하다는 장화 때문이다. 일회용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것도 여러

Style로, 명색이 비닐로 된 장화라니까 잠깐 신을것인데 설마 물이 새겠냐고 싼 것으로 주문을 부탁했다.

물에 들어 가자 마자 나는 물이 든 비닐 주머니에 신발을 넣고 걷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건 장화가 아니고 그냥 “발 싸개”였다.

오랫동안 많은 임원들이 수고한 것에 비하면 5박 6일은 너무 짧았던 것 같다. 하지만 모두 순수함을 잃지 않고 검소하고 겸양과 배려를 갖춘 동문들을 보며 이건 우리 부고 졸업생들만의 특별한 향기이며 자랑인 걸 느끼면서 나는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했다. 어디 쯤 와 있는 내 인생 일까 - 대답 없던 그 밤 바다가 그림다.

내년 총회는 이곳에서 하란다. 걱정이 앞선다.

- 아틀란타 부고 동문회 총무 임혜옥(17회)



드디어 뉴욕 크루즈를 갔다 왔다. 우리가 탔던 Regal Princess를 타고 같은 코스를 먼저 다녀왔던 교회 친구가 묻는다.

“배가 Brooklyn항을 막 출항할 첫날 저녁, Manhattan의 그 멋진 모습을 보았나? 그거 장관인데...” 그가 또 묻는다, 저녁에 16층 Deck에서 상영하는 초대형 Screen의 영화를 보았

느냐고, 모두 못 보았다. 전체 모임, 동기 모임에 참석하느라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놓친 것이다. 어디 나뿐이라. 6일간의 크루즈 여행이라면, 하루는 아무 Schedule을 잡지 않고, 각자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 바빴다. 부고 졸업후 49년에 보는 친구와도 눈인사밖에 나누지 못 하였으니 아쉽다. 한가지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버스 3대를 대절하여 우리 일행 140여명이 참가하였던 St. John이야기이다. 추후 탑승 인원을 점검하고 보니, 한사람도 그냥 탄 사람없이 요금을 선납한 총 인원과 정확히 일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천하부고인이 모인 행사로서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 행사를 준비하였던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서 아쉽고 죄송하였던 일이 많았지만 참여하였던 161명 모두가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 최완섭(22회)



여행은 호기심이다. 특별히 크루즈는 처음 경험이기에도 더욱 벅찬 감동과 울림이 컸다. 1년 동안 준비했지만 과연 얼마나 호응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천하부고만이 이를 수 있는 공감과 소통의 여행을 성황리에 마친 것이다. 관

심과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한참 동안 행복했던 순간의 잔상이 남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캐나다 크루즈를 통해 미주연합회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추후에도 더 좋은 만남의 기회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동창회 사무처장 김진혁(27회)



이번 크루즈를 통해 저는 47이라는 등번호 같은 닉네임이 생겼습니다. 오며가며 얼굴을 마주 할 때 마다 따뜻한 미소로 47회~ 하시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언니오빠라고 부

르지 못하는 성격 덕에 주위에 늘 동생들만 있던 저는 은근히 언니 오빠있는 친구를 부러워 했나 봅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이름 한번 들은 적 없는 후배에게 사대부고 동창이라는 이유 만으로 이쁘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 든든한 뒷배라도 생긴 듯 우쭐한 마음입니다. 1995년 부고 졸업 후 같은 해 식구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지요. 어딘가 기대고 싶고 내 편이 필요할 때, 신문에 커다란 지면 광고가 보였습니다. “서울사대부고 가주 송년의 밤”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어쩌면... 동기동창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어 1997년 처음으로 동창회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는데... 어떤 일인지 그때 부터 현재 까지도 기대와는 달리 동기는 말할것도 없고 밑으로는 몇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인이 얼마 없는 테네시 주에 거주 하니 동창은 물론이고 한인을 만날 기회도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크루즈에서 21회 22회 23회 선배님들께서 모여서 시간을 보내시는 걸 보며 얼마나 부럽던지요. 부러움을 등에 지고 지금 부터 백방으로 사대부고 동창 찾기를 해보렵니다. 응원해주세요! 저는 어느덧 딸 넷을 둔 엄마가 되었고 마흔도 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크루즈 여행에서 그동안 없던 언니오빠들이 왕창 생겼습니다. - 사실 한번도 언니 라거나 오빠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 다른 많은 후배들도 이런 "이쁨받음"을 느껴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 구송영(47회)